

정재관 과장
국제협력과

세계 해외직접투자 최근동향

목 차

1. 세계전체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2. 주요국의 직접투자 동향
 - 가. 미국
 - 나. 일본
 - 다. 유럽
 - 라. 주변아시아 국가
 - 마. 우리나라
 - (1) 전반적 동향
 - (2) 지역별 동향
 - (3) 업종별 동향
 - (4) 해외직접 투자 특성
- (5) 해외 직접 투자 평가
- (6) 해외투자 세부전략
- (7) 해외 직접 투자계약 요인 및 개선과제
3. 종합
 - 가. 회복되는 투자 증가세
 - 나. 세계 경제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직접투자
 - 다. 개도국으로서 투자확대
 - 라. 세계투자에서 미국의 비중 증대
 - 마. 선진국은 해외투자, 개도국은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큼
 - 바. 주변국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큼

1. 세계 전체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최근 세계의 해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세계 각 국가들의 경제를 연결시키는 주요 구조였던 국제무역보다 빠르게 성장해 오고 있다.

더구나 세계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초국적 다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전개시키고 있으며, 새롭게 부상하는 초국적 다기업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이는 FDI가 무역에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FDI와 무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러한 연결이 어떻게 국가(특히 개도국)의 경제 성장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지와 같은 문제들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UNCTAD가 발표한 '96세계투자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

한 특징,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가. 해외직접투자 동향

95년 세계 경제성장과 기술개발, 국제경쟁 및 무역자유화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대응은 전세계에 걸쳐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촉진시켰다.

외국인투자(투자유입기준)는 94년 2,260억 달러, 95년 3,150억달러로 40% 증가했으며 해외투자(투자유출기준)는 94년 2,300

세계 해외직접투자 현황(90~95)

(단위 : US\$ 억달러)

	선진국		개도국		중·동유럽		총 계	
	외국인 투자	해 외 투자	외국인 투자	해 외 투자	외국인 투자	해 외 투자	외국인 투자	해 외 투자
90	1,700	2,230	340	180	0.30	0.04	2,040	2,040
91	1,140	2,020	410	90	30	0.04	1,580	2,110
92	1,140	1,810	510	210	40	0.10	1,680	2,030
93	1,290	1,920	730	330	60	0.20	2,080	2,260
94	1,330	1,910	870	390	60	0.55	2,260	2,300
95	2,030	2,710	1,000	470	120	0.30	3,150	3,180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6

진국들은 개도국에서의 적극적인 유출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95년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상위 10개국이 전체 유출입의 68%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5개 투자국이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유출입)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나. 전략적 제휴

국가간 전략적 제휴는 지난 10년에 걸쳐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의 성장률을 반영하고 있다.

95년 국가간 M&A 총액은 2,290억 달러로 선진국 상위 국가가 1,350억 달러로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M&A의 중심은 서유럽 국가로 대부분 EU 내의 거래에 기인하지만 M&A의 최고 국가는 미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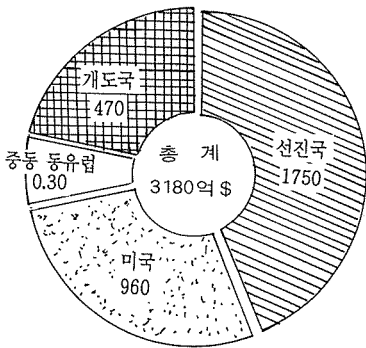
M&A주대상 업종은 에너지, 통신, 금융, 제약, 서비스 산업이며, 이중 중·소 서비스 관련 산업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 초대형 다국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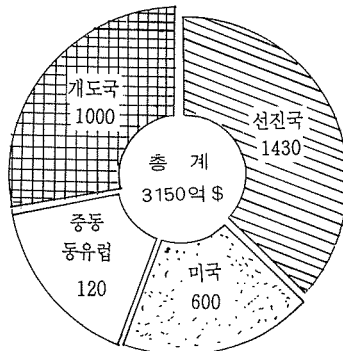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이 대부분 국제 생산을 지배, 해외자산 평가에서 100대 다국적 기업은 모두 선진국에 본사를 소재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은 약 1조 4,000억 달러의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전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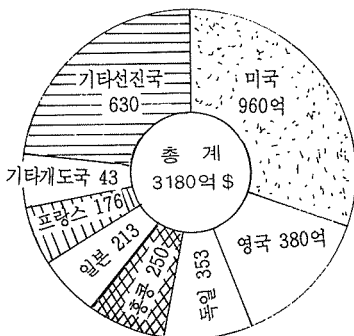
95 해외직접투자(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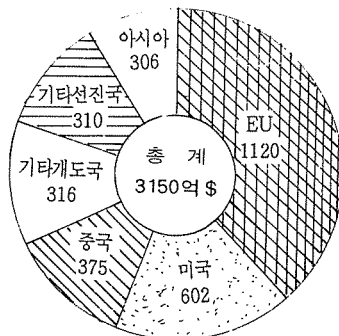
95 외국인 투자(유입)



95 해외투자



95 외국인 투자



억 달러, 95년 3,180억달러로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95년 해외투자 유출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입기준)는 53% 상승하여 2,030억 달러, 해외투자

(유출기준)는 42% 상승하여 2,71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개도국은 외국인투자액이 15% 상승한 1,000억 달러, 해외투자액은 15% 상승한 47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일반적으로 선

산에서 해외비율로 볼때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다국적 기업이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다.

유럽 다국적 기업들은 자본/연구개발 및 지식산업에서 두드러진 성장이 전망되며 국제화 순위에서는 다국적기업 업종에서 화학·제약이 1위. 음식, 전기가 2위. 무역회사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상위 100대 다국적 기업들의 장래 투자계획은 해외직접투자의 상당한 상승을 암시하고 있다.

앞으로 선진국 해외직접투자는 여전히 상위 100대 기업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며 90년대 후반 세계 다국적 기업들은 아시아지역에서 최고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100대 다국적 기업순위에 32개 포함 국제적인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다국적 기업은 상위 100대 다국적 기업순위에서 19개 기업이 포함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발도상국 상위 50대 다국적 기업에서 한국의 대우는 총 자산대 해외자산 비율을 기준으로 볼때 50대 다국적 기업중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대우는 베트남에 투자한 최대 규모의 투자자로 올라 있다.

또한 대만의 Acer는 필리핀 수빅만에 투자한 최대 규모 투자자이며 한국의 삼성, 대우, 엘지 등은 모두 상위 50개 다국적 기업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기존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경쟁력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선진국에 대

주요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95년)

(단위 : US\$ 백만불)

		90	91	92	93	94	95
중 국	해투	830	913	4,000	4,400	2,000	3,467
	외투	3,487	4,366	11,156	27,515	33,787	37,500
싱 가 포 르	해투	2,034	1,024	1,317	1,784	2,177	2,799
	외투	5,575	4,879	2,351	5,016	5,588	5,302
말 레 이 시 아	해투	532	389	514	,325	1,817	2,575
	외투	2,33	3,998	5,183	5,006	4,348	5,800
인 도 네 시 아	해투	-11	13	52	-31	15	12
	외투	1,093	1,482	1,777	2,004	2,109	4,500
태 국	해투	140	167	147	221	493	904
	외투	2,444	2,014	2,116	1,726	640	2,300
대 만	해투	5,243	1,854	1,869	2,451	2,460	3,822
	외투	1,330	1,271	879	917	1,375	1,470
한 국	해투	1,056	1,500	1,208	1,361	2,524	3,000
	외투	788	1,180	727	588	809	1,500

자료 : UNCTAD, Wored Investment Report 1996.

삼성 → 미국의 AST, Integrated Telecom. Technology. ATM 공급자 인수.(영국, 독일, 스페인, 헝가리 등 유럽 11개 생산공장에 6,000명의 현지인 고용)

엘지 → 미국의 Zenith인수.(이탈리아에서 냉장고, 독일에서 카세트 레코더,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서 가전 제품 생산) 또 루마니아, 러시아, 헝가리에 공장을, 독일, 러시아) 아일랜드에 디자인 센터 운영

현대 → 미국의 ATT의 계열회사 NCR Microelectronics인수

대우 →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전자제품 공장을, 중부 및 동부 유럽에 자동차 조립 공장 보유

세계 100대 다국적기업 투자계획(96~2000)

(단위 : %)

	유 럽		북 미		일 본	
	자국내 투자	해 외 투자	자국내 투자	해 외 투자	자국내 투자	해 외 투자
EU	19	18	26	22	2	3
북 미	26	24	9	16	12	14
아 시 아	6	10	5	12	28	38
중 남 미	4	6	-	-	4	6
아 프 리 카	2	2	-	-	-	-
기 타	2	3	2	5	2	2
해외/국내	59%(41)	63%(37)	42%(58)	55%(45)	48%(52)	63%(37)

자료 : UNCTAD, 세계투자보고서 1996

1. 자국내 투자는 90~95년중 투자임.
2. 해외투자는 96~2000년중 투자 계획임.

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라. 향후 투자계획

UNCTAD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의 향후 투자 계획은 일부 개도국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경제성장 예측이 확고해 지면 해외 직접 투자 분야에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유형이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는 현재의 유형이 지속될 전망이다. 북미지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은 유럽지역을 고도의 기술집약 산업과 소비재 산업에 가장 유력한 투자 대상 지역으로 꼽고 있다.

또한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은 향후 가장 전망이 밝은 투자 대상 지역으로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96~2000년 동안 남부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전망이다. 독일의 AKEO, BASF, Bayer사 등은 중국에 대규모 화학 관련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미국의 Du Pont와 스위스의 Ciba-Geigy사 등도 신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최대규모의 해외 직접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거리 통신 등의 다양한 사회 간접 자본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다.

유럽소재 다국적기업의 경우는 96~2000년기간 중 투자비중을 국내 37%, 해외 63%로 잡고 있으며 북미지역에 많이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90~95년기간 중 유럽기업의 투자비율이 41對 59(국내對 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해외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이다.

북미 다국적기업들도 지난 6년 58%에 달했던 자국내 투자비중을 향후 5년간 자국투자비중을 45%로 낮추고 대신 해외에 55%를 투자할 계획이다.

일본기업의 경우는 6년간 국내와 해외투자비중이 52對 48이던 것을 향후 5년간은 37對 63으로 전환, 대대적인 해외투자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다국적기업은 시장성이 풍부한 對아시아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이 지역 투자를 놓고 국내 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유럽기업의 경우 전체투자 중 아시아 투자비중을 종전 6%에서 10%, 북미기업은 9%에서 16%, 일본기업은 28%에서 무려 38%로 각각 높일 계획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100대 다국적 기업들은 유망한 신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남미에 대한 투자비중도 지난 6년동안보다 2~7% 높여 잡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은 기존의 해외 가동시설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확장할 예정이다.

94년 엘지와 대우가 해외에서 생산한 비율은 각 그룹의 총생산의 3%와 8%에 불과. 두 그룹은 2000년대에는 총생산에 해외생산 비율을 각각 45%와 60%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96년 엘지 그룹은 영국 South Wales의 Newport지방에 대규모 전자·반도체 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이곳에서는 반도체·모니터·CTV 및 모니터부품을 생산 2002년까지 총 26억 달러를 투자하고 6,100여명의 현지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기업이 아닌 한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규모면에서 최대규모의 투자이다.

2. 주요국의 직접투자 동향

가. 미국

미국의 외국인투자(유입)는 94년에 비해 21% 증가하여 95년에 60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1922년 전 세계 개도국의 총 외국인투자(유입)액보다 많고 선진국들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영국의 외국인투자(유입)액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95년 미국은 해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여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발원지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으며 95년 총해외투자액(유출)은 약 1,000억 달러로서 2위인 영국보다 무려 580억 달러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90	91	92	93	94	95
해 외 투 자	27,175	33,456	38,978	68,978	45,640	95,509
외국인투자	47,918	22,020	17,580	41,128	49,760	60,236

자료 : UNCTAD, 전개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90	91	92	93	94	95
해 외 투 자	48,024	43,619	21,916	15,471	18,521	21,286
외국인투자	1,753	1,730	3,490	234	908	39

자료 : UNCTAD : 전개서

전세계 해외투자액(유출)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95년 약 30%로 80년대 후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국인 투자는 93년에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는 바 이는 93년부터 국내 경기가 본격 성장국면에 돌입한 면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해외투자에서 92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서도 92년만 제외하고는 계속 세계 제1위를 유지하고 있다. (92년은 프랑스가 제1위)

전반적으로 해외투자가 외국인 투자보다 많아 유출 초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격차가 적어 대체로 균형세를 보이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은 80년대 후반에는 세계 최대의 투자국이었으나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91~92기간중 해외투자가 계속 감소하다가 최근

엔고의 심화에 따라 이에 적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투자를 94년부터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초반의 해외투자 감소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수익성 악화, EC시장 통합대응진출의 일단락,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신중한 투자자세, 구미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93년 세계 최대규모 투자자 순위에서 5위로 뒤쳐진 이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유출)는 94년에 20%, 95년 15% 증가하여 회복 추세에 있으며 95년 유출액은 210억 달러에 달하였지만 80~91년 사이의 연간 유출액의 전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90년 중반 일반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 동기는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거나 증가시키려는 전략이다.

93~95년 엔화의 환율이 25% 이상 상승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고려하는 동시에 미국의 경기 회복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급성장도 일본의 해외투자를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투자는 엔고와 일본 내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해외투자의 약 1/13수준에 그치고 있어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일본의 해외투자는 R&D를 비롯한 현지화 투자,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일본과 아시아의 분업구조 심화를 위한 투자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유럽

유럽국가들의 해외투자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으나 94년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해외투자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국가의 해외직접투자(유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입)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경제성장의 차이 또는 경기침체의 회복시기의 차이 또 일부 선진국의 경우 기업 M&A의 규모때문에 발생했으며, 독일은 미국에 대해 규모가 가장 큰 투자자로서 95년 110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영국이 그 다음으로 10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전반적으로 유럽국가들의 해외

서유럽 국가들의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국 명	'90	'91	'92	'93	'94	'95
해외투자	영국	19,9327	16,304	18,982	25,671	25,334	37,839
	독일	24,214	23,723	19,698	13,176	14,653	35,302
	프랑스	34,823	23,932	31,269	20,403	22,802	17,554
	이태리	7,585	7,222	5,891	7,409	5,106	3,210
	네덜란드	15,388	13,565	14,294	10,934	11,510	12,431
	5국계	101,337	84,746	90,134	77,593	79,405	106,336
외국인 투자	영국	32,430	16,208	14,934	14,475	10,085	29,910
	독일	2,689	4,071	2,370	277	2,993	8,996
	프랑스	13,183	15,153	21,840	20,752	17,136	20,124
	이태리	6,411	2,401	3,105	3,749	2,199	4,347
	네덜란드	12,349	6,316	7,656	6,521	4,369	9,850
	5국계	67,062	44,149	49,905	45,774	36,782	73,227

자료 : UNCTAD : 전개서

주변아시아국가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국 별	'90	'91	'92	'93	'94	'95
해외투자	중국	830	913	4,000	4,400	2,000	3,467
	싱가폴	2,034	1,024	1,317	1,784	2,177	2,799
	태국	140	167	147	221	493	904
	말레이시아	532	389	514	1,325	1,817	2,575
	인도네시아	-11	13	52	-31	15	12
	대만	5,243	1,854	1,869	2,451	2,460	3,822
외국인 투자	중국	4,487	4,366	11,156	27,515	33,787	37,500
	싱가폴	5,575	4,879	2,351	5,016	5,588	5,302
	태국	2,444	2,014	2,116	1,726	640	2,300
	말레이시아	2,333	3,998	5,183	5,006	4,348	5,800
	인도네시아	1,093	1,482	1,777	2,004	2,109	4,500
	대만	1,330	1,271	879	917	1,375	1,470
	한	788	1,180	727	588	809	1,500

자료 : UNCTAD : 전개서

투자는 역내 투자가 많으며 95년 말까지 유럽의 역내 투자는 41%를 차지했다.

라. 주변 아시아 국가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 태평양 지역은 95년에 650억 달러(94년대비 21% 증가)의 외국인투자액(유입)을 기록했으며 또 개도국 해외투자액의 65%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ASEAN회원국 4개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에 대한 외국인투자액은 94년 86억 달러에서 95년 14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서아시아의 외국인투자액은 94, 95년 모두 약 25억 달러로 93년 30억 달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지역의 외국인 투자액의 58%를 차지, 개도국 전체에 대한 현재의 투자 붐을 촉진시키는 주역, 외국인 투자금액이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적은 규모지만 중국 경제 규모로 볼때 매우 높은 편이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92, 93년 사이에 147% 상승하였지만 94년 23%, 95년 11% 상승하였다.

외국인투자액은 93년 280억 달러에서 95년에는 380억 달러로 상승하여 80년에 선진국 전체의 연평균 외국인 투자액과 거의 같다.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외국인투자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비해 해외투자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90년대 초반의 세계 직접투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높은 경제 성장률, 외국인 투자 자유화 등에 따라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10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95년의 경우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투자유치국이다.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때 외국인 투자는 대만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모두 앞서 있으나 해외투자는 제일 많이 하고 있으며 중국은 92년부터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 95년 해외투자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이루어졌다.

마. 한국

(1) 전반적 동향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과거 안정적인 국제수지 적자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8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임금의 급상승 선진국의 수입규제강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개 해외생산기지를 건설하고 판매거점을 구축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수입규제를 피하거나 외국의 싼 인건비를 찾아 밖으로 나가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이제는 적극적인 해외투자자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이들 기업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투자의 필요성이 커감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시기에 따라 비교적 큰 변동폭을 나타내어 88~91년 기간중 급증하는

해외직접 투자 추이(투자실행기준)

(단위 : 백만불)

	'90	'91	'92	'93	'94	'95	'96
해외직접투자	959.3 (68.4)	1,125.4 (17.3)	1,255.0 (11.6)	1,317.4 (4.9)	2,346.7 (78.2)	3,066.7 (30.7)	4,133.5 (34.5)
외국인직접투자	803 (-26.3)	1,396 (73.9)	894 (-35.9)	1,044 (16.7)	1,317 (26.1)	1,941 (47.4)	3,201 (64.9)
GNP 증가율	9.6	9.1	5.0	5.8	8.4	-	-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1. 해외투자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 연호

2. 외국인투자 : 재경원 「외국인투자동향」

3. GNP증가율 : 한국은행

현상을 보인 후 92~93년 기간중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가 94년 부터는 다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5년에 약 30억 달러에 이르렀고 96년말에는 약 41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는 노사분규 급증과 이에 따른 임금상승, 토지비용, 물류비용의 증가 등 생산여건 악화에 따라 80년대 후반이후 감소하다가 9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외국인 투자 증가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따른 내수 시장 확대와 외국인투자 개방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2년 부터는 해외투자가 외국인 투자를 초과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외투자 허가동향은 96년말까지 1,717건 60억 7,600만달러로 전년 동기의 1,557건, 49억 1,200만달러보다 건수 및 금액면에서 각각 10.3%, 23.7% 증가하였으며, 이중 대기업이 리드한 투자

는 96년 287건 46억 6,000만불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1%, 27.3% 증가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허가도 96년 924건, 12억 5,200만 달러로 전년동기(1,109건, 10억 4,800만 달러)보다 건수로는 -16.7% 감소했으며, 금액으로는 19.5% 증가하였다.

해외투자 실행동향은 96년말 1,370건, 41억 3,350만달러로 전년동기의 1,291건, 30억 6,670만 달러보다 건수 및 금액면에서 각각 6.1%, 34.8%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95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으로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은 증가하는 이유가 투자규모의 대형화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최근의 해외투자가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2) 지역별 동향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96년말 현재 허가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각각 전체의 19.2%(1,164백만불), 건수로는 25.8%(1,568백만불)를 차지했으며, 미국은 기술 확보와 수출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저임금 활용 및 광대한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진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유럽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94년부터는 확대되고 있으며 96년말 현재 전체의 21.5%(1,304백만불)을 차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초창기에 주요 투자대상국이던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ASEAM지역으로의 투자는 90년대 초반 감소하다가 95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96년말 현재 49.3%(2,994백만불)을 차지했다.

(3) 업종별 동향

선진국과는 달리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모두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이는 우리나라 산업활동이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전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경우 제조업 중에는 과거에는 섬유·의류업종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자·전기업종의 진출이 가장 많고 비제조업 중에는 무역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미국, 일본의 경우 해외투자에서 기계, 장비업종과 금융 보험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으며 이는 산업발전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비해 아직 뒤떨어져 있음을 반영하고

해외투자현황(허가기준) (단위: 건, 백만불, %)

구분	'95		'96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557 (100.0)	4,912 (100.0)	1,717 (100.0)	6,076 (100.0)	10.3	23.7
대기업	281 (18.1)	3,661 (74.5)	287 (16.7)	4,660 (76.7)	2.1	27.3
중소기업	1,109 (71.2)	1,048 (21.4)	924 (53.8)	1,252 (20.6)	△16.7	19.5
개인 및 개인사업자	167 (10.7)	203 (4.1)	506 (29.5)	164 (2.7)	203.0	△19.2

주) 허가/신고수리기준, ()는 구성비·자료: 한국은행

투자건수 투자규모 변화추이

	'92	'93	'94	'95	'96
	1.91	1.79	1.84	3.15	3.54

해외투자 지역별 허가동향

	95		96		전년동기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아시아	1,224(78.6)	2,400.4(48.9)	1,270(74.0)	2,994.6(49.3)	46	594.2
중국	875(56.2)	1,064.8(21.7)	874(50.9)	1,568.0(25.8)	-1	503.2
북미	161(10.3)	1,448.7(29.5)	224(13.0)	1,179.6(19.4)	63	-269.1
미국	153(9.8)	1,412.0(28.7)	213(12.4)	1,164.4(19.2)	60	-247.6
유럽	81(5.2)	673.9(13.7)	101(5.9)	1,304.7(21.5)	20	630.8
중남미	45(2.9)	288.1(6.9)	47(2.7)	407.1(6.7)	2	119.0
기타	46(3.0)	101.0(2.1)	75(4.4)	189.9(3.1)	29	88.9
계	1,557	4,912.1	1,717	6,075.9	160	1,163.8

주) 아시아는 중동제외, ()은 구성비(%)·자료: 한국은행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96년말 현재 제조업은 전체의 57.2%(3,475백만불)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무역업이 17%, 건설업이 4.7% 차지했다.

(4) 해외직접투자 특성

가) 해외직접투자의 급증
80년대 중반까지 해외직접투자

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80년대 중반이후 해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외투자 증가의 요인은 동남아 국가로 진출한 기업의 경우는 노동력 확보와 이를 통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과 설비투자를 활발히 하였고,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으로 진출한 기업의 경

우는 무역장벽과 시장진입의 용이성을 위한 자동차, 반도체 등의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 따라 그 비중이 95년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GDP대비 2.3%를 유지하게 되었지만, 이웃 일본의 10.1%와 대만의 6.9%에 비하여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제조업 투자의 증가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95년말 기준으로 전체산업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이고, 95년 한해동안은 전체산업의 64.8%를 차지함으로써 갈수록 제조업의 투자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 해외투자 급증의 원인은 해외생산기지 마련을 위한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 건수당 투자금액은 94년까지 낮은 수치를 기록하다가 95년 들어서 급격하게 신장되고 있다.

다) 투자지역의 집중화

동남아와 북미의 진출비율이 전체비율의 약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진출의 지역적 편중이 심한 편이다.

동남아의 경우는 계속하여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해외투자 지역별 투자 동향

(단위 : 건, 백만불)

	95		96		전년동기대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아 시 아	1,013(78.5)	1,645.7(53.7)	1,018(74.3)	1,584.0(38.3)	5	-61.7
중 국	729(56.5)	818.0(26.7)	687(50.1)	801.5(19.4)	-42	-16.5
북 미	133(10.3)	545.9(17.8)	186(13.6)	1,567.4(37.9)	53	1,021.5
미 국	126(9.8)	534.3(17.4)	179(13.1)	1,548.7(37.5)	53	1,014.4
유 럽	79(6.1)	613.8(20.0)	76(5.5)	640.3(15.5)	-3	26.5
중 남 미	30(2.3)	163.8(5.0)	37(2.7)	214.6(5.2)	7	60.8
기 타	36(2.8)	107.5(3.5)	53(3.9)	127.2(3.1)	17	19.7
계	1,291	3,066.7	1,370	4,133.5	79	1,066.8

주) 아시아는 중동제외, ()은 구성비(%)·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 업종별 허가동향

(단위 : 건, 백만불)

	95		96		전년동기대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제 조 업	1,119(71.9)	2,929.5(59.6)	1,167(68.0)	3,475.1(57.2)	48	545.6
조립금속	222	1,477.7	282	1,699.3	60	221.6
섬유의복	199	344.6	199	302.9	0	-41.7
섬유화학	95	178.9	91	303.1	-4	124.2
무 역 업	130(8.3)	865.7(17.6)	126(7.3)	1,031.9(17.0)	-4	166.2
건 설 업	54(3.5)	130.3(2.7)	47(2.7)	288.4(4.7)	-7	158.1
기 타 1)	254(16.3)	986.6(20.1)	377(22.0)	1,280.5(21.1)	123	293.9
계	1,557	4,912.1	1,717	6,075.9	160	1,163.8

1) 기타는 광업, 임업, 수산업, 운수보관업, 서비스업 등임.

()안은 구성비(%)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 업종별 투자실행 동향

(단위 : 건, 백만불)

	95		96		전년동기대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제 조 업	910(70.5)	1,985.3(64.7)	950(69.3)	2,182.2(52.8)	40	196.9
조립금속	187	993.6	236	1,152.6	49	159.0
섬유의복	169	215.6	166	231.4	-3	15.8
섬유화학	87	136.7	69	139.1	-18	2.4
무 역 업	118(9.1)	299.7(9.8)	102(7.4)	929.5(22.5)	-16	629.8
건 설 업	40(3.1)	75.8(2.5)	28(2.0)	82.6(2.0)	-12	6.8
기 타 1)	223(17.3)	705.9(23.0)	290(21.2)	939.2(22.7)	67	233.3
계	1,291	3,066.7	1,370	4,133.5	79	1,066.8

자료 : 한국은행

이고, 북미의 경우는 투자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 두지역의 투자비중이 너무 높음으로 인하여 동일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간의 경쟁과 투자대상국의 규제대상으로 인한 어려움은 불가피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 투자형태의 지역적 상이성

단독투자의 경우는 북미를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에 합작투자를 상회하는데, 이는 선진국의 투자 관련 제도와 법규가 단독투자에 대한 제재를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동남아를 비롯한 후진국의 경우에는 주요산업과 여러 산업에 걸쳐서 외국인 지분조항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단독투자가 우위를 보이고 있어 합작을 통한 기술의 습득이나 기술이전의 효과 보다는 우선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려는데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대기업 투자의 급신장

93년 이후 대기업의 해외투자 비율이 금액이나 건수면에서 중소기업을 압도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대기업은 생산요소 비용이 낮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생산여건과 제품판매 시장이 공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

고 있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의 규모가 거대해져 생산 및 판매거점의 해외 분산없이는 생존이 어렵고, 투자대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대기업들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5) 해외투자 평가

우니나라 해외투자는 국내 비교열의산업 중심으로 주로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해외진출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접분야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다각화 전략과 공정간 분업 또는 제품차별화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산업구조 조정과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투자동기도 독점적 경쟁우위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현지시장 확보보다는 저렴한 노동력이나 무역장벽 회피를 위한 소극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총투자규모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95년 처리기준 총 177억 달러로 일본의 3.8% 수준이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투자목적, 투자전략, 현지경영기법에 사전준비없이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해외투자 세부전략

향후 해외투자는 산업구조정책과 연계를 강화,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공동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노동집약적, 단순조립

가공 분야는 해외직접투자가 효율적인 국제분업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의 생산간 보완 또는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국내에서 고부가제품, 해외에서 저부가제품을 생산하여 제품차별화 분업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기술집약적 공정, 해외에서 노동집약적 공정을 배치하여 제품 공정간 분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 공동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첨단 고도기술분야는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선진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 출범 후 어려워진 쌍무차원 기술 이전보다는 지역통합체내의 테크노마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투자환경 차이에서 오는 투자마찰을 극복, 현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부품조달현지화→자본현지화→인적자원현지화→연구개발현지화→경영관리현지화 수준을 뛰어넘어 자회사설립→인재통합화→경영관리통합화→정보공유를 통해 현지화를 고도화 시켜야 할 것이다.

단독투자는 노무관리, 현지판매 등 현지화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므로 지역특성이나 진출업종에 따라 신중해야 하며 초기에는 자금조달, 각종 정보 및 마케팅 능력 부족을 극복하고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합작투자가 바람직하다.

지역별로는 중국, ASEAN에 현지 시장을 겨냥할 경우 합작투

자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제3국으로의 우회 수출금지 확보와 기술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단독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중국, 베트남, 서남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국내 산업고도화와 산업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업종별로는 ASEAN지역에서 투자이점이 상실되고 있는 섬유, 신발, 전자업종에 대해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점차 이들 국가의 기술 흡수력을 고려, 수송기계와 석유화학, 철강 등 자본집약적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

북미지역에 대해서는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인수·합병(M & A)이나 합작투자를 중점 추진하되 NAFTA 확대 등을 겨냥한 거점식 투자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멕시코의 경우는 저렴한 인건비 등 투자환경이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기업에 유리하므로 북미시장 확보와 남미시장 진출을 교두보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7) 해외직접투자의 제약요인 및 개선과제

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제약요인

1) 현재 생산체제의 취약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의 무역장벽이나 국내의 임금상

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생산제품이나 원료 및 중간재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만들어져 생산지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현지 기업들은 조립판매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산체제로 인하여 당초의 현지생산품의 저가 판매라는 전략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중국과 ASEAN국가 등의 저가 경쟁에서 뒤지게 되었다.

2) 투자대상국의 규제정책

해외투자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개도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각종 규제정책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동남아 등 우리기업들의 주요 투자대상국들은 복잡한 검역과 통관제한, 불리한 반덤핑 규제, 금융, 세제 및 조달정책의 차별대우를 통하여 높은 투자장벽을 쌓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선·후진국 각

국의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자국내 투자를 우회수출로 간주하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자국산 자재사용(Local Content)이다.

이 제도에 따라 제품 생산시 현지 원료나 중간재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도국의 경우는 현지 관련 산업의 부족으로 고품질 생산이 어렵게 되고 선진국들은 중간재의 공급가격이 높아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우회수출형 투자가 많은 우리기업의 경우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나) 개선과제

1) 업종, 지역편중의 탈피

특정 지역의 일부업종에 편중된 투자는 위험관리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업체간의 과열경쟁을 유발할 가

주요국의 투자 및 수입규제 내용

국 가	내 용
미 국	○미국인 특혜정책 및 미국산 사용의무화 정책 ○반덤핑 규제정책의 자의적 운영 ○까다로운 통관절차 및 비자발급 절차
일 본	○섬유류, 수산물 등 각종 쿼터에 의한 수입제한 ○해외건설자재 품질검사 증명 등 복잡한 품질검사 ○항만시설 이용의 불공정 관행
중 국	○수출입검사에 따른 통관지연 및 과다비용 부과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보증금 예치 ○중국산 원자재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환급
유 럽	○불합리한 반덤핑 조사절차 ○혜택이 없는 사회보장세 부과

자료 : 매일경제신문

1) 수은조사월보 발체

능성이 높고 또한 당사국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의 다변화와 업종의 다양화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저임금의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탈피하여 점차적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화를 통하여 현지산업에 기여하고, 현지화의 잇점을 활용하여 그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2) 실질적 금융지원

제도적으로는 해외투자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은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비한다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금융지원이 담보위주로 이루어지므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신용대출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신용대출을 중소기업으로 확대적용하고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설립과 현재 리스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3) 효율성을 수반한 투자전략

우리 기업은 후발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장점을 빼앗기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선진기술의 습득을 통하여 후발개도국과는 차이점을 가질 수 있는 첨단산업으로의 이행을 통하

여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첨단기술의 습득을 위하여는 과학, 기술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동구유럽이나 러시아와의 합작이 유용할 것이다.

4) 정부의 직접개입 배제

기업의 생리는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경영전략을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효율성의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직접개입 보다는 환경조성을 통하여 기업들이 효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의 투자에 대한 직접개입은 우리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상호개입을 유발하여 결국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의 개입을 등에 업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경영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쓰러질 것은 뻔한 사실이다.

3. 종합

가) 회복되는 투자 증가세

- 세계의 직접투자는 경기 침체의 경향으로 91~92 기간중 감소하다가 93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나) 세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직접투자

- 80년대 후반(86~90) 산업

해외투자 정책과제(제도측)

- 5,000만달러 이상 투자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 투자자금 조달방법 제한
 - '95. 6 업종제한 폐지
 - 5,000만달러 이상 허가제
 - 1,000~5,000만달러 신고수리
 - 1,000만달러 미만 외국환 은행 인증
- 자기자금 조달 의무 98년 폐지
- 현지 금융에 대한 모기업의 지급보증 제한
(총투자규모의 5%, 모기업 자본금의 100%로 강화)
-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 기업들의 투자활동 용이하게 여건 조성
- 기초적인 해외경제정보 체계적 공급
- 해외투자상담 민간 투자자문업 태동
- 해외투자 보허제도의 개선
- 해외투자 전문인력의 양성프로그램 개발
- 수출보험제도 보완 →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보험의무화

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Industry) 추세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가 연평균 29%씩 증가하였다.

- 90년대 들어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국내 상품, 서비스 교역에 비해 보다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다.

다) 개도국으로의 투자확대

- 외국인투자에서는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95년의 경우 68%)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계속확대, 이는 개도국의 높은 경제성장, 투자자유화조치 확대,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민영화사업 추진 등에 기인하고 있다.

- 특히 최근에는 개도국 중 중국으로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95년 경우 13%(375억달러 차지)) 그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에 외국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세계 투자에서 미국의 비중 증대

-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이 세계 해외투자의 제1위국이었으나 92년 부터 미국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95년 경우 미국이 세계 해외 투자의 40% 차지하고 있다.

마) 선진국은 해외투자, 개도국은 외국인 비중이 크다

세계 주요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불)

		'90	'91	'92	'93	'94	'95				
미	국	27,175	33,456	38,978	68,178	45,640	95,509				
	외투	47,918	22,020	17,580	41,128	49,760	60,236				
일	본	48,024	42,619	21,916	15,471	18,521	21,286				
	외투	1,753	1,730	3,490	234	908	39				
영	국	19,327	16,304	18,982	25,671	25,334	37,833				
	외투	32,430	16,208	14,934	14,475	10,085	29,910				
독	일	24,214	23,723	19,698	13,176	14,653	35,302				
	외투	2,689	4,071	2,370	277	2,993	8,996				
프	랑	스	해투	34,823	23,932	31,269	20,403	22,802	17,554		
		외투	13,183	15,153	21,840	20,752	17,136	20,124			
이	태	리	해투	7,585	7,222	5,891	7,403	5,106	3,210		
			외투	6,411	2,401	3,105	3,749	2,199	4,347		
네	덜	란	드	해투	15,388	13,565	14,294	10,934	11,510	12,431	
				외투	12,349	6,316	7,656	6,521	4,369	9,850	
대	만	해투	5,243	1,854	1,869	2,451	2,460	3,822			
		외투	1,330	1,271	879	917	1,375	1,470			
싱	가	폴	해투	2,034	1,024	1,317	1,784	2,177	2,799		
			외투	5,575	4,879	2,351	5,016	5,588	5,302		
중	국	해투	830	913	4,000	440	2,000	3,467			
		외투	3,487	4,366	11,156	27,515	33,787	37,500			
태	국	해투	140	167	147	221	493	904			
		외투	2,444	2,014	2,116	1,726	640	2,300			
말	레	이	지	아	해투	532	389	514	1,325	1,817	2,575
					외투	2,333	3,998	5,183	5,006	4,348	5,800
인	도	네	시	아	해투	-11	13	52	-31	15	12
					외투	1,093	1,482	1,777	2,004	2,109	4,500
한	국	해투	1,056	1,500	1,208	1,361	2,524	3,000			
		외투	788	1,180	727	588	809	1,500			

자료 : UNCTAD, 전개서

- 미·일, 서유럽 모두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를 초과. 이는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주도가 되어 세계산업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해외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비율이 1.2 : 1인 반면, 일본은 13.6 : 1로써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산업공동화에 따라 우려가 약한 반면 일본은 크게 느끼고 있다.

- 개도국은 모두 외국인 투자 유치를 경제발전 전략으로 삼고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보편적인 글로벌화 추세에 참여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바) 주변국가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크다

- 미국은 캐나다와 중남미에, 일본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에, 유럽국가들은 역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사)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모두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선진국, 인접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뒤떨어져 있다.

- 점차 선진경제권 진입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외투자가 외국인

투자를 초과하고 있으나 가급적 격차가 최소화 되는 미국형이 바람직 하다.

- 종합적으로 볼때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는 보다 자유롭게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전 3사 백색가전 생산 늘린다

올해 백색가전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 전망이다.

23일 LG전자·삼성전자·대우전자 등 가전3사의 올해 주요제품 수급계획에 따르면 각사는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백색가전제품의 생산을 대폭 늘림과 동시에 수출목표를 크게 높여잡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냉장고 생산목표를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총 2백만대로 잡고 수출은 작년보다 24% 증가한 120만대로 늘려잡았다.

세탁기 생산은 작년보다 22% 증가한 총 138만대를 잡고 수출목표는 35% 늘어난 84만3천대로 설정했다.

또 지난 94년 이후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는 에어컨은

올해 총 134만대를 생산, 91만여대를 수출할 방침이다. 이같은 에어컨의 생산·수출목표는 작년실적보다 각각 16%·22% 늘어난 것이다.

반면 미국 제니스의 역할을 확대시킨 컬러TV는 작년보다 6% 증가한 820만대를 생산하기로 했으며 VCR는 4% 늘어난 486만대를 생산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냉장고 생산목표를 작년보다 18% 가량 증가한 205만대로 잡았으며 수출목표도 135만대로 20% 높게 설정했다.

또한 세탁기 생산은 95만대, 에어컨은 84만대로 각각 14%·9% 가량 늘려잡았으며 수출목표는 각각 35만대 51만대로 작년보다 20%·8%씩 늘렸다.

삼성전자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컬러TV는 작년보다 14% 늘어난 총 1,020만대를 생산하고 이 가운데 920여만대를 수출하기로 했다. 반면 VCR는 생산목표를 작년보다 2% 늘린 총 560만대로 잡았다.

지난해 5대 가전제품 수출증가율이 가전3사 중 가장 높았던 대우전자도 올해 냉장고 생산목표를 작년보다 15.8% 증가한 총 132만대로, 수출목표는 21.2% 증가한 92만대로 설정했다.

세탁기는 작년보다 23.7% 많은 123만여대를 생산, 이중 86만여대를 수출하기로 했다. 또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공급선을 크게 늘린 전자레인지도 지난해보다 20.7% 늘어난 총 3백47만여대를 생산, 3백32만여대를 해외시장에 수출할 계획이다.